

평화당, 한국당 5·18 징계결과에 격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 총회 및 제3차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18정신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해산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5·18 왜곡 발언 의원 3명 징계 처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는 유보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정당대회 후보자로 나선 것을 언급하며 "이들이 차기지도부

까지 진출한다면 한국당이 지향하는 바가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우 세력만의 정당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들을 출당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넘어 간다면 이들의 반헌법적 망언에 한국당이 동조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망언 당사자 3인을 즉시 출당 조치하고 국회 제명 절차에 동참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예상했던 우려 현실로...물타기 쇼”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도 촉구 “차기지도부 진출시 국우 세력 증명”

촉구한다고 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여론 면피식의 패능은 사과와 셀프 징계 추진을 말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물타기식 쇼만 보여줬다”며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영혼도 없는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경험을 살리면 한국당 세 의원의 제명은 틀림없이 된다”며 “한국당 윤리위가 오늘 언 밤에 오줌누기 식으로 시간을 벌려는 결정 한 것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반사법적인 판단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당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6년 6월 한 일간지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민원 씨가 근거도 없는 망언을 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5·18정신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인터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에 급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에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윤리위로부터 5·18 왜곡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반사법적인 판단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국당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광주 안간 이해찬 대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

문에도 “그 공청회에 참석조차 안 했다”라며 “동영상 메시지도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5·18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 유에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일

“석연함은 경위로 들어가 있다면 가려내야” 징계 유에 결정에 “출가분해제...전대 집중”

연해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서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말 5·18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상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권 인사가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는 사회자 질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다 밝혔다”라고 답했다.

“짐이 없다”라며 “좀 출가분해됐으니까 정당대회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가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출가분해된 건 아니다”라며 “정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게 됐으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는 “안타깝다”라고만 말했다. 5·18 단체들이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당대회니까 모든 걸 녹여서 집중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임기 종료 앞둔 김병준, ‘5·18 망언’ 사태에 속앓이

자유한국당이 연일 5·18 폄훼 파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임기 종료를 앞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으로 불의를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대신해 세 번이나 고개 숙여 사죄했다. 또 불의를 일으킨 의원들과 관리감독을 못한 자신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윤리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을 만나 쓴소리를 듣고 3명 의원직 박탈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창 상승세를 보이던 당 지지율은 14일 지난주 대비 3.2%p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2.5%p), 한국당은 3.2%p 하락한 25.5%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 위원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7월 3주차 18.3%로 시작한 낮은 지지율은 점점 올라 30% 고지를 눈앞에 두고있던 중이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다양

지난해 7월 취임, 안정적 당 운영으로 지지율 상승 일조

5.18 망언 사태로 사과, 3인방 윤리위 회부에도 지지율 ↓

하지만 가장 큰 공은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극에 달하던 계파분열을 단기간에 가라앉게 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적하는 ‘국가주의 프레임’을 만들고 아이(i)노믹스 아이(i)플리터스 등 정부에

당을 향한 적극적 공세를 취한 점도 김 위원장의 성과로 거론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안정적인 당 운영을 높게 평가하는 당내 의원들이 나올 정도다.

물론 김 위원장의 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건 사실이다. 당무감사 없이 전국 25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키고 인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신경전을 촉발했다는 지적이 있다. 조직강화 특별위원으로 영입한 전원택 변호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일 거라는 게 정치권 인력의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이를 바탕으로 추후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임기 막판에 터진 5·18 망언 사태로 당 지지율은 단기간에 하락세로 돌변했다. 자칫 5·18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정당대회는 물론 당 지지율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또 입각설’ 우상호·박영선 “청와대 연락無”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첫 주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13일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다수 제기됐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며, 이미 청와대 제안을 받고 ‘수락’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작 ‘급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 인력에서는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부처 장관의 후보자 검증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다시금 제시됐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인 우 의원(3선)이 문체부 장관으로, 국회 정국이자 장외화할 경우 정당대회는 물론 당 지지율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김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의원.

“나는 아는 게 없고 청와대로부터 (입각 제안) 들은 얘기도 없다. 검증 절차에 대해서도 못 들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의 경우 입각 보도가 나오자 이에 휴대전화로 쫓겨온 언론과의 접촉도 피했다.

우 의원의 최측근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입각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하자 우 의원이 허뭇뭇 기사에 한 번씩 다 올랐었는데 이번엔 또 (부처) 어디라는 것이냐. (청와대) 전화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